

봄의 서막, 천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강진청자축제 21일 개막

3월 2일까지 10일간 청자·미술 결합 체험 프로그램 풍성 어린이 브랜드 뮤지컬 공연 등 어린이 프로그램 한가득

천년 고려청자의 본고장 강진에서 제 54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1973년 시작된 강진청자축제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서막을 알리는 강진군의 대표 축제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 열리는 한 해의 첫 축제다. 올해 축제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자와 미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청자 물레 성형 체험, 청자 색칠놀이, 샌딩아트, 청자 머그컵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등 '흙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에어바운스 키즈존을 비롯해 미술 포일

아트, 선캐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 키즈존, 청자 입체 퍼즐·디폼·샌드 아트·오락실 체험 등이 준비된 놀이터 키즈존 등 3종의 키즈존과 전국 어린이 민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헬로 카봇(22일), 신비아파트(28일) 등 인기 어린이 브랜드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전통의 맥을 잇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와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강진청자축제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청자골 불명캠프와 화목소원 태우기 등 '불'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1일 오후 6시에는 축제장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진다. 트로트 가수 김수찬, 미스김, 서지오를 비롯해 '현역가왕2' 최수호, '미스터트롯'



진 안성훈이 출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미스터트롯3' 선 손빈아와 함께하는 강진노래가요제 우리 동네스타가 개최된다.

이 밖에도 청자골 족욕 체험, 강진 가족 사진관,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청자 굿즈 및 유등 전시, 청자 무게 맞추기, 웃음 참기 대회 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푸드트럭·음식 부스가 운영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유채꽃과

홍매화로 조성된 포토존은 도내 축제 중 가장 이른 봄을 알리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정책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관외 관광객은 여행 경비 중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편한 사전 신청과 사후 정산 절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반값여행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군, 2월 정례 조화... 군정 방향 공유와 소통 가족전염병과 산불 발생에 대한 선제적 점검

진도군은 지난 2월 2일에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 조화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 조화에서는 제일타카(주) 김희숙 대표가 진도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인재 육성 지원에 대한 뜻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과 진도군인재육성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진도군은 전달된 기부금과 장학금을 지역의 발전과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숙 진도군수는 직원 격려말씀을 통해 가족전염병과 산불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각종 재난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관심을 두고, 명절 기간에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정례 조화를 통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위민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굴착기·지게차·조경량비행장치(드론) 3개 기종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농업 현장의 기계화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기계 사용에 대응해, 전문자격이 필요한 농기계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55명으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굴착기 또는 지게차) 40명, 조

보성군, 농기계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굴착기·지게차·드론 자격 취득 교육비 50% 지원

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사 1종 15명이다.

교육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농업인(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신청 시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굴착기 및 조경량비행장치(드론) 과정

은 2종 보통 이상, 지게차 과정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모집 인원 총원 시 마감된다.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1과정만 지원할 수 있다. 보성/김문기 기자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농기계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 시간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며, 11월 3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전문자격 취득 지원은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문기 기자

담양군이 지역 내 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담양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설 명절 이후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월 한 달간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군, 설맞이 2월 담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한시적 상향

설 이후 침체된 소비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군민의 체감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한도 상향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각 카드 50만 원, 지류 50만 원으로 1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 조

치는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차(Chak)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광군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통합돌봄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은 영광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입원치료 중 간병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는 중위소득 100%이하 노인, 지체·뇌병

영광군, 저소득층 '안심돌봄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

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퇴원후에는 재가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연 1회, 최대 10일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

으며, 지원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간병비 지원 신청은 입퇴원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

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은정 사회복지과장은 "의료, 요양, 주거, 돌봄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양시 4개 전통시장,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시민 물가 부담 완화·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관내 전통시장 4곳이 선정돼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 10일(화)부터 14일(토)까지 5일간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광양시에서는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중마시장, 광영상설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세부 참여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부 지원(농축산물) 사업에는 ▲광양5일시장 5

개 ▲광양매일시장 9개 ▲중마시장 14개 ▲광영상설시장 4개 점포 등 총 32개 점포가 참여하며 해양수산부 지원(수산물) 사업에는 ▲광양매일시장 8개 ▲중마시장 24개 ▲광영상설시장 5개 점포 등 총 37개 점포가 참여한다.

광양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참여 상인회와 점포주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환급 부스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